

哲學上으로 본 生存의 意義(三)

哲學의 定義와 實在探究의 形式

韓稚振

以上에 論及한 各種 實體論을 簡略히 云하면 아래와 같다.

| 實體論 | | | | | | | | | | | | | | | |
|-------------|-------------|-------------|-------------|-------------|-------------|-------------|-------------|-----|----|----|----|-------------|-------------|-------------|-------------|
| 唯物論 | | | | 物心二元論 | | | | 唯物論 | | | | | | | |
| 質的 | | 量的 | | 哲學的 | | 素朴的 | | 質的 | | 量的 | | | | | |
| 靜的 | 動的 | 靜的 | 動的 | 靜的 | 動的 | | | 靜的 | 動的 | 靜的 | 動的 | | | | |
| 多 元 論 | 二 元 論 | 多 元 論 | 二 元 論 | 多 元 論 | 二 元 論 | 多 元 論 | 二 元 論 | | | | | 多 元 論 | 二 元 論 | 多 元 論 | 二 元 論 |

以上과 가티 우리 人生은 그 存在의 意義를 찾기 爲하여 여러 方面으로 實在探究의 航海를 한 結果에 現代 우리의 生存 立脚地는 어디에 處하게 되었는가? 人生과 그 自然環境의 意義를 組織的으로 批判하고 探究하기는 紀元前 四五百年부터 始作하였다는 것은 思想史가 證明하는 것이어니와 今日에 處한 우리는 古代와 中世紀서 보지 못하든 新世界에 와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혀 公平無私한 現代 生存 批判家들의 貢獻한 緣故이다. 現代思想의 始作은 『푸란시스, 쎄콘』(一五六一 - 一六二六)의 思想의 『新機具』에서 되었다 하고 機械的 世界觀의 始作은 二種 書籍에서 되었다 할 것이다 하□ 一五四三年에 出版된 나는 白耳義人 『베살니어스』가 著述한 『人體의 構造』는 現代 生物學을 創設하였고 獨逸人 『코퍼니커스』가 著述한 『天體의 運動』이라는 冊子는 新 天文學을 提唱하였다. 이 두 冊은 今日 우리로 하여금 新世界에 到着하여 살게 하는데 指南針이 되었다.

『코퍼니커스』 以前에 본 世界는 時空間 上으로 狹小하고 有限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宇宙의 中心을 우리의 地球로 보았다. 太陽, 月, 恆星, 其他 一切의 天體는 다 一定한 距離를 두고 地球를 回轉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天體는 언제 엇더케 存在하게 되었는지는 몰으나 不過 幾千年 前에 創造되었고 以後 不遠하여 末世가 잇스리라는 것은 慕倣하게 알 것 뿐이었다. 이러

케 우리 地球가 宇宙의 中心이 되니만큼 그 우에 사는 우리 사람의 價値도 最貴한 것이 되었다. 글字의 意味대로 그 새 사람은 萬物의 靈長이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天文學은 以上 地球中心의 『갈네덕』世界觀을 否認하고 그와 反對로 太陽中心의 世界觀을 主張하였다. 地球는 홀로 잇서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太陽을 中心하고 回轉하는 八大行星의 一個 小星에 不過하게 되었다. 地球는 太陽에 比較하여 百三十萬 倍가 적고 그 距離는 九千三百萬 英里이다. 行星 中에 하나인 木星과 地球를 比較하드래도 木星은 地球보다 一千三百 倍나 더 크다. 그런즉 地球는 行星 中에도 別로 큰 것이 못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太陽에서 地球에 그 光이 올라면 每秒 十八萬六千 英里의 速度를 가진 光이 八分二十 抄를 消費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太陽系의 最 外에 잇는 海王星의 軌道直線을 通過하려면 光은 八時十五 分을 消費하여야 한다.

淸명한 夜間에 보이는 별들은 우리 太陽系와 넘우 멀리잇는 故로 그 距離를 測定하는데는 英里數로 보다 光年으로 計算하는 것이다. 그 中에 第一 갓 갓다하는 쉰토리 별에서 光이 우리에게 올라면 每秒 一八六000 英里가는 光이 四年四 個月을 걸려야 한다. 이것을 □數로 計算한다면 二十에다가 十二 個番을 添加하여야 한다. 그 다음 太陽系와 第一接近한 十九個 星은 三十七 光年の 直徑을 가진 範圍 안에 잇다 하니 이 宇宙의 廣大를 斟酌 할 수있다. 現代 分光器가 發明된 以後는 적어도 十萬光年の 遠距離外에 잇는 별의 距離를 測定 할 수 있게 되었다. 夜間에 보이는 銀河라는 것은 우리 太陽과 가튼 별의 集合體이다. 天文學者들은 銀河의 廣幅을 三十萬 光年이라 한다. 이 銀河 맞게 잇는 星雲들은 亦是 다른 宇宙들이라고 推測한다. 그러나 이 宇宙內에 無數한 天體가 運動하고 잇는 것을 알 수 있다. 夜間에 우리 肉眼으로 볼 수 잇는 별은 不過 五千個이오, 現代 巨大한 望遠鏡으로는 約 三億個의 별을 볼 수 있다. 以後 望遠鏡이 더 發達됨을 싸라서 只今보다 多數한 별을 더 보게 될 것이다. 『갈닐네오』 以後에 이 宇宙는 空間적으로 無限한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우리는 宇宙의 中心이 어디인지 알 수 업게 되었다.